

여수시, 외국인정책팀 신설...글로벌 포용 도시 조성 본격화

2025년 등록 외국인 7570명

상반기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사업별 예산 확보 지원 시책 발굴

여수시가 올해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포용 도시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섰다.

여수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3년 6405명에서 2025년 7570명으로 2년 사이 약 18%가 증가했다. 전남도 내에서는 영암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이는 관내 영세 제조업체와 수산 가공업, 바다

작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군에 내국인 구직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 다양한 체류 유형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전담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외국인 현황조사 및 정책개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발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공모 사업 신청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 다양한 의

견을 폭넓게 수렴해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사업별 예산을 확보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지난 1월 전남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여수시 가족플러스센터 등 관내 외국인지원단체 6개소를 방문해 외국인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제조업체나 수산 업종에 계절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세계를 품은 배움, 우주를 향한 도전

'행복 고흥교육 비전' 선포식

세계·배움·우주항공 등 가치 제시

고흥군이 지난 10일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교육지원청과 함께 '행복 고흥교육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 고흥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고흥교육이 지향하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협력적 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와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군의원, 교육·공공기관장, 학부모, 학생, 지역 기관·단체장 등 지역 교육공동체 전원이 참석해 고흥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함께 확인했다.

비전 선포식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고흥교육 소개 영상 상영, 비전 주제 발표, 실천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흥교육 소개 영상에서는 고흥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활동과 함께, '우주항공수도 고흥'을 상징하는 메시지를 담아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의 핵심인 주제 발표에서는 '행복 고흥교육 비전'을 세계·배움·우주항공·도전·행복 등 다섯 가지 가치로 제시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직접 참여해 비전의 의미와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고흥교육의 비전이 특정 기관이나 행정 중심의 선언이 아니라 지역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약속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전라남도 교육감, 고흥군수, 고흥군의회 의장,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함께하는 '고흥교육 비전 실천 다짐 결의(공동 다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비전 실천에 대한 공동 의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역과 동행하며 고흥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교육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으로, 지난해 고흥군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공교육 지원과 돌봄 확대, 산학 연계 교육, 정주 여건 개선을 교육청·대학·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고흥에서 배우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전라남도 교육감, 고흥군수, 고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교육발전특구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기관 간 연계 구조를 점검해 고흥형 교육혁신이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논의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순천시, 원도심 '순천부읍성 디지털역사관' 개관

도시의 과거·현재·미래 한 눈에

순천시가 원도심에 있는 순천부읍성 서문안내 소를 '순천부읍성 디지털역사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디지털역사관은 과거 순천부읍성부터 현재의 원도심, 나아가 미래의 청사진을 한자리에 담아낸 역사 문화공간이다. 특히 시민들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역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와 실물 유산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관람객은 조선시대 순천부읍성의 풍경과 문화 중심지로 성장한 현재의 원도심, 그리고 첨단 콘텐츠가 더해진 미래의 모습을 담은 디지털 영상을 통해 순천의 시간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순천의 국가유산을 소재로 순천부읍성을 시각화한 벽면 전시와 실제 순천부읍성 성돌을 활용한 실물 전시를 통해 지역 역사 자산을 더욱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역사관 일부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시민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는 역



순천부읍성 디지털역사관 내부 모습.

사관이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살아있는 기록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부읍성 디지털역사관은 과거를 넘어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공간"

이라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이 공간을 시작으로 순천부읍성 일대를 원도심 탐방의 출발점으로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육성해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나주시, 고전력반도체로 전력망 바꾼다...국비 확보 시동

재생에너지 확대 인프라 구축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핵심 기반이 될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조성에 나서며 국비 확보 활동을 본격화했다.

나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 반영을 목표로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기획해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직류 전력망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반도체 모듈의 시험·평가 인프라를 국내에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전력(SiC), 고주파(GaN), 와이드밴드갭

(WBG) 기반 전력반도체 모듈의 성능 검증과 실증을 지원하는 장비를 구축해 전력·에너지 기업들의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한다. 국방과 친환경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부품 공정과 분석 장비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스마트 전력망 전환을 추진하면서 고효율 전력 변환을 담당하는 전력반도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핵심 기술과 시험·평가 인프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산화와 기술 자립을 위한 실증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 공기업, 전력 분

야산학연 기관이 집적된 지역으로 전력망과 에너지 신기술 실증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도 전력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업 연계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나주시는 전남도, 켄텍과 함께 산업부를 찾아 이 같은 지역적 강점과 연구·산업 기반을 설명하며 마중을 국가 전력반도체 실증 거점으로 육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국가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중앙부처와 협력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진도군, 민원서비스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행안부·권익위 평가 최고 등급

진도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3년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를 평가해 순위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진도군은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자 보호 등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불법 주차와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한 사례가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보성' 조성에 총력

백신 공급·방역 시스템 구축 만전

보성군이 철저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없는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올해 ▲구제역·돼지 전염병·꿀벌 전염병 예방 백신 공급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 활동비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청정 보성'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과 돼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백신과 구제 약품을 지원한다. 특히 구제역과 렘피스킨병은 공수의를 동원해 소규모 농가까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사용 소독시설, 방제레프트, CCTV,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지원한다. 아울러 축산농가 안개 분무 소독시설 및 방조망 설치 지원 사업을 신설해 조류로 인한 전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영광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에 울타리, 전설,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거점 소독 시설을 24시간 상시 가동해 가축전염병 유행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신안군, 고향사랑기부자 관광지 무료 등 예우

신안군이 고향사랑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예우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신안군에 따르면 누적 기부액 10만원 이상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군 운영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입장, 신안군 주관 각종 행사·축제 초청, 연하장 또는 감사 편지 발송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기부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란 철학 아래 형식적인 예우가 아닌 신안만의 방식으로 고마움을 전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문화·여행과 연계된 예우를 통해 기부자들이 섬의 역사와 예술을 체험하고, 계절별 축제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신안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은 물론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에게도 신안을 다시 찾게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은 이번 예우를 통해 기부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지역에는 재방문과 선회환 구조를 만들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부자에게 형식적인 '고맙습니다'가 아닌 작은 설렘을 주고 싶었다"라며 "이번 예우가 기부자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되고, 신안에는 오래가는 인연으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카카오톡 공식계정 개설

17일까지 친구추가 이벤트 진행

무안군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정 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톡 공식계정을 개설했다.

카카오톡 공식계정 개설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 이어 메신저 기반 소통 채널을 추가한 것으로 일상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군정 소식을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 고 마련했다.

무안군 카카오톡 공식계정 '무안군청'에서는 군정 주요 소식과 각종 행사·모임 안내, 생활 정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공식계정 개설을 기념해 17일까지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벤트(사진)도 함께 진행하며 군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카카오톡은 군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소통 수단인 만큼, 군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곡성군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운영 협약

곡성교육지원청·곡성고와

곡성군이 지난 10일 곡성교육지원청, 곡성고등학교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주도학습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오는 4월에 개소 예정인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곡성고등학교 내 정독실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될 예정이며, 인강실과 자율학습공간을 갖추고 전담 학습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EBS 학습 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설계와 1:1 진로·진학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일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곡성 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